

# “밝은사회장학 투명성 기대”...장학금심사위원회 시범 운영

박창원 기자 macpark342@khu.ac.kr

【국제】지난 14일 국제캠퍼스(국제캠) 총학생회(총학)에 대한 장학금심사위원회(장심위)의 심사가 진행됐다. 지난해 논란이 된 장학금 대리수령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총학 측 장학금 수령 과정을 투명하게 하기 위한 과정에서다. 장심위는 국제캠 총학의 공약사항으로 중앙운영위원회(중운위)에서 의결된 사안이며, 이번 학기 시범 운영 중이다.

총학이 수령할 이번 ‘밝은사회장학’에 대한 심사는 약 15분 간 진행됐다. 밝은사회장학이란 학생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역량강화장학 중 한 종류로, 총학생회, 학생자치단체 등에서 활동하면 수령 자격을 갖출 수 있다. 심사에는 장심위 위원장인 미래혁신원 단장, 학생지원센터 센터장, 학생위원 총 세 명이 참석했다. 총학생회장은 이날 회의를 통해 총학에게 할당된 장학금 예산을 직급, 기여도 등에 따른 ‘밝은사회장학금’ 책정안을 장학위원회에 제출했다. 이어 장학위원이 제출 받은 서류를 검토하고 책정안을 승인하는 것으로 심사는 마무리됐다.

이번 심사는 지난해 논란이 됐던 대리수령 문제 재발 방지 등을 위해 기획 및 진행됐다.(생명과학

대학 장학금 논란, 제도 허점 이용한 관행이 원인/제1651호 3면, 2019.09.19.)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지난달 25일 국제캠 중운위는 ‘총학생회칙 내 밝은사회장학금 관련 조항 추가 안건’을 의결했다. 밝은사회장학의 지급 기준인 ‘학생 중 공적이 뚜렷한 자로서 학생지원처장이 추천한 자’에 부합하는지의 여부를 심의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국제캠 총학 양성민(원자력공학 2016) 회장은 “작년까지만 해도 학생회에서 장학신청서 결재를 요청하면 이렇다 할 심사과정 없이 승인 및 처리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심의의결과정을 통해 장학수령의 원칙을 정하고 이를 의무화해 장학금 수령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것이 이번 심사의 목적으로, 매 학기 심사를 거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아직 학생총투표로 통과된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이번 학기에는 시범 운영하는 것”이라 덧붙였다.

양 회장은 “장학금 수령을 투명하게 하는 것이 학생회의 가장 핵심 공약이었던 만큼 성사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며 “이 정책을 차기 학생회부터 실시하도록 할 수도 있었지만, 이번 2학기부터 시범 운영하는



국제캠 양성민 총학생회장이 장심위에서 장학금 책정안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국제캠 총학생회 제공)

것이 학생회의 미래에 이바지하는 것이라 판단했다”고 말했다.

장심위는 총학생회 및 단과대학 학생회 임원이 수령하는 밝은사회장학을 심사하는 기구로, 장심위 위원은 총학생회와 단과대학 별로 상이하게 구성된다. 총학생회 장심위는 장학금 관련 사안을 총괄하는 미래혁신원 단장, 학생지원센터장, 국제캠 학생위원으로 구성된다. 단과대학은 단과대학 자율운영 원칙에 따라 단과대학 학장, 행정실장, 해

당 단과대학 소속 학생위원으로 구성된다.

장심위에 속하는 학생위원을 구성할 때 위원회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 학생자치기구 구성원은 제외된다. 양 회장은 “앞으로 학생위원은 모집을 받을 예정”이라면서 “다만 장심위를 명문화하기 위한 학생총투표가 아직 진행되지 않았고, 코로나19 등으로 학생들이 학교에 오기 어려운 상황 등을 고려해 이번에는 근로학생에게 협조를 구해 학생

위원으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장심위 소식을 들은 한 학생은 “문제가 됐던 장학금 수령 과정을 심의하는 것은 투명성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회의가 진행된 이후 회의록을 공개하는 것처럼, 심사 기준과 결과를 공시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학생은 “심사가 앞으로 유명무실해지지 않도록 명확한 기준을 공개하고 기준에 따른 절차 또한 밝혀주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 캠퍼스타운 조성사업단 신용보증재단과 업무 협약

김가연 기자 rkds0617@khu.ac.kr

대학 ‘독립연구’로 협력  
지역경제 활성화·상생 모색

【서울】우리학교 캠퍼스타운 조성사업단이 지난 2일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역사회 상생을 위해 서울 신용보증재단(신용보증재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실업 및 주거 문제, 지역 침체 문제를 해결하는 캠퍼스타운 조성사업(캠퍼스타운 사업)을 기반으로 한다.

업무협약은 서울약령시장(약령시장) 활성화와 회기동 소상공인 지원을 중심으로 추진한다. 캠퍼스타운 김문자 매니저는 “우리학교는 우수한 인력을 제공하고, 신

용보증재단은 연구 및 컨설팅 비용과 오랜 시간 축적한 소상공인 지원 노하우를 제공할 예정”이라며 “양자가 협력해 상권 활성화 및 홍보 컨설팅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약령시장 활성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업무협약과 관련한 사업 진행 기간은 협약이 체결된 2일부터 캠퍼스타운 사업이 끝나는 2023년까지다.

제기동에 위치한 약령시장은 1960년대 형성돼 전국 한약 유통거래량의 70%를 차지하는 전통시장이다. 2013년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 한방특구로 지정되기도 했다. 그러나 약령시장협회는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상가의 70% 이상이 적자를 내고 있는 상태”라고 전했다.

이에 우리학교는 업무협약을 통



우리학교와 서울신용보증재단 업무협약식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캠퍼스타운사업단 제공)

한 사업의 일환으로 독립연구 과목을 통해 약령시장 홍보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서울 약령시장 상권 활성화 방안 연구’를 주제로 우대식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와 5명의 학생들이 연구를 진행한다. 우 교수는 “약령시협회와 신용보증재단이 약령시장의 10개 상점을 우선적으로 선정하면, 학생들과 함께 각 상점의 상인을 만나 마케팅 방법을 고민할 예정”이라며 “효율적인 연구를 위해 신용보증재단과도 꾸준히 만나 컨설팅 방법을 논의

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학생들은 전공 지식을 활용해 재래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고, 약령시장은 홍보 효과 및 매출 증대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효과를 밝혔다.

지난해 시행된 회기동골목상권살리기 프로젝트의 후속 사업인 회기동 소상공인을 위한 대출 지원 사업도 진행된다. 신용보증재단은 코로나19 상황이 완화되는 대로 상인들을 만나 대출 일정을 논의할 예정이다. 김문자 매니저는 “지난해 신용

보증재단에서 회기동 상인을 대상으로 대출 지원 사업을 진행했기 때문에 올해는 특별한 지원 계획이 없었지만, 캠퍼스타운 사업단에서 코로나19로 인해 사정이 어려워진 소상공인들의 상황을 고려해달라고 요청한 이후 추가지원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지난해 시설 지원 및 간판 교체 사업에 대한 회기동 소상공인들의 반응이 좋았던 만큼 이번 지원도 상인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약령시협회는 우리학교와 신용보증재단의 업무협약 체결에 힘입어 경희대 인근의 독거노인, 장애인 가정 등 코로나19에 취약한 60여 가구에 약령시장의 면역력 강화상품을 제공하기로 했다. 김문자 매니저는 “약령시장 상권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이 체결된 만큼 약령시협회의 장점을 살린 지역 공헌 활동제안을 드렸고 약령시협회에서도 흔쾌히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약령시협회는 사업을 일회성으로 끝내지 않고 매년 다른 지역을 선정해 지원을 이어나갈 예정이다.